

# 새 생각, 새 기술로 21세기 축산업 진로 모색

오봉국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장 겸 공동대회장

우리나라 축산업은 새로운 각오와 생각으로 21세기에 걸 맞는 형태로 다시 태어나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그간 몇 마리의 소와 돼지, 그리고 닭을 집 근처에 놓아 기르던 형태를 벗어나 점차 부업 축산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는 어엿한 전업 내지는 기업화 된 축산업으로 발전하여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졌지만 수출국에 비하면 아직도 생산기반이 취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오는 2001년이면 마지막 보루였던 쇠고기 시장까지 전면 수입이 자유화되어 그간 어렵게 쌓아온 축산업의 기반이 약화되어 생산기반이 붕괴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우리 축산인들은 다시 거듭난다는 각오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된다.

이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축산인들의 의지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축산업이 새 천년에도 변함없이 존속되도록 어려운 가운데에도

중지를 모아 오는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농업인의 날과 연계하여 서울 삼성동 소재 코엑스(COEX) 본관 1층 태평양관에서 축산업이 산업화 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전 축종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축산인들은 나름대로 슬기를 집약하고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참여의 장을 마련키 위해 각 단체별, 또는 업종별로 크고 작은 전시회와 박람회를 개최하여 동일업체간의 화합과 참여기회를 가져왔으나 대개 지엽적인 행사로 끝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축산업이라는 큰 틀(공동체) 아래 상부상조하며,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 축산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산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행히 축산박람회는 전 축산인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

우선 축산박람회 개최 초년도인 금년에는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뿐 아니라 축산관련업계, 즉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축산물 가공식품, 유통 등 축산관련사업(Agri-Business)을 총망라한 범축산업계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산과 소비·유통이 하나가 되도록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한국 축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생산시설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보이며, 동물약품, 배합사료 및 부존자원 사료화 설비, 종축, 축산관련 서적 및 정보화 시스템, 생명공학 관련제품, 축산물 위생 및 가공처리시설, 브랜드 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고른 출품과 품목이 총 망라되어 한눈에 축산과 관련된 모든 품목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전시행사에 이어 부대행사

그간 한국양계박람회를 4회째 개최한 경험이 있는 대한양계협회가 4개 공동 주체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축산시설환경기계협회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코엑스와 공동으로 주관해 나가고 있다.

로는 축산인 대회 및 종합학술대회, 각 단체별 세미나, 우수축산인 및 기자재업체 선발 시상, 축산지도자와 소비자 단체 교례회, 안전축산물 홍보를 위한 소비자 교육, 요리솜씨대회 및 요리강습회, 축산물 홍보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에 임하고 있다.

이번 축산박람회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의 전개"라는 주제로 한국 축산업이 향후 지구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자연과 인간, 그리고 축산업이 공존공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부대행사도 짜임새 있게 수립하여 축산인들에게는 세계화에 걸 맞는 정보제공과 미래상 정립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를 저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99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일반적인 국제축산박람회와는 성격을 달리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양축가 뿐 아니라 축산관련업계, 즉 사료, 동물약품, 기자재, 축산물 가공식품, 유통 등 축산관련사업(Agri-Business)을 총망라한 범축산업계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생산과 소비·유통이 하나가 되도록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여 다가오는 21세기 한국 축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축산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범 축산업계가 본 박람회에 동참하여 공동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슬기를 모아주시길 바라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㉞